

사소하다고 여겼지만 다리를 잃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환자 A - 당뇨병이 있는 경우, 어떤 신발을 신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 A 씨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병력이 있는 47 세 여성입니다. 그녀는 왼발에 감염된 물집이 생겨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댄스 파티에서 이 신발(그림 13-1)을 신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왼발 옆쪽에 물집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발적과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찰을 해보니 왼발의 피부 농양이 감염되어 발목 쪽으로 뿔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집을 절개하고 고름을 빼내야 했습니다(그림 13-2). 그녀는 감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감염은 결국 해결되었지만, 이 상처 결함을 막기 위해 수개월 동안 수많은 상처 치료를 시도했지만 발에 치유되지 않는 큰 구멍이 남았습니다. 상처 아래 뼈도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발 MRI 검사를 의뢰했고, 궤양 옆의 뼈가 감염된 것이 MRI 영상에 나타났습니다(그림 13-3). 이 시점에서 감염된 뼈를 제거해야했고(그림 13-4) 한 달 만에 상처가 마침내 해결되었고(그림 13-5) 마침내 그녀는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림 13-1



그림 13-2



그림 13-3



그림 13-4



그림 13-5

환자 B-55 세 남성으로 10 년 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경구용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이 붓고 빨갛게 부어 응급실에 왔지만 통증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발가락 사이에서 악취가 나는 노란색과 녹색의 액체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그림 13-6). 응급실에서 오른쪽 발을 신체 검사한 결과 발바닥이 붓고 고름이 고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동안 메스로 발바닥을 절개하여 고름을 모두 빼냈습니다(그림 13-7). 감염과 고름은 새끼 발가락과 다음 발가락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부위에는 무좀과 굳은살이라고도 알려진 곰팡이 감염이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 부위가 감염되고 박테리아 감염이 발바닥으로 들어가 발바닥에 고름이 생겼습니다. 환자는 발 감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환자는 심각한 혈액 순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혈관 외과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혈관 외과 의사는 환자의 혈액 순환 문제가 심각해 감염이 치료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오른발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혈관 재개통 시술을 받았습니다. 오른발 혈관 재건술 후 상처는 치유될 수 있었지만(그림 13-8), 치유가 완료되는 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상처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지 않고는 치유될 수 없었고,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림 13-6



그림 13-7



그림 13-8

환자C-내향성 발톱 때문에 다리를 잃었습니다.

67 세 남성인 환자 C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입니다. 투석으로 인한 신부전 병력과 심각한 혈액 순환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수년간 담배를 피운 병력이 있습니다. 그는 만성 내향성 발톱을 가지고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톱의 내향성 부분을 다듬고 알코올과 과산화물로 씻고 청소하여 내향성 발톱을 혼자서 관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제 사무실에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내 사무실에 왔을 때 그의 발가락은 이미 청색증과 푸른 빛을 띠고있었습니다(그림 13-9). 이 경우 족부 전문의, 혈관 외과 의사, 전염병 전문의, 내분비 전문의가 다리를 구하려고 시도했지만 발가락이 괴저가 되었고 엄지 발가락을 잃었습니다(그림 13-10). 혈액 순환 문제가 진행된 환자의 경우 경미한 발가락 절단도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발가락 절단은 치유되지 않았고(그림 13-10), 다리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발의 절반을 절단해야 했습니다(그림 11)(그림 13-12). 이번에도 다리를 살리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림 13-9



그림 13-10



그림 13-11



그림 13-12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1. 내향성 발톱과 같이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당뇨병 환자는 다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2.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3. 담배를 피우면 혈액 순환이 손상됩니다.

환자 D-45세의 건설 노동자인 환자는 15년 동안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보니 왼발에 피가 흥건히 묻은 양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녹슨 못이 발에 박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통증이 없었고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의 아내는 발바닥부터 다리가 붉어지고 2nd 발가락 2개가 검게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그림 13-13). 그가 응급실에 왔을 때 저는 즉시 수술 치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의 2nd 발가락은 괴저가 생겨 제거해야했고 다리쪽으로 이동하는 고름을 빼내야했습니다. 그의 왼발은 발의 깊은 조직 내 고름을 흡입하는 데 사용되는 상처 진공 석션기(그림 13-14)로 치료했습니다. 그는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지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그림 13-15).



그림 13-13



그림 13-14



그림 13-15

환자 E- 망치 발가락으로 다리를 잃었나요?

이 환자 E는 65 세 남성으로 26 년 동안 제 2 형 당뇨병을 앓은 병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왼쪽 발가락 2 번째와 3 번째 망치발가락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의학적 문제를 가진 장기적인 중증 흡연자였습니다. 그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신부전,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세 번째 발가락에 있는 두꺼운 옥수수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진료실에 내원했을 때 그의 두 번째 발가락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림 16 및 13-17).



그림 13-16



그림 13-17

심각한 혈액 순환 문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는 즉시 혈관외과 전문의에게 혈관 재개통 시술을 받았지만 발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다리를 잃었습니다.